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것이라 -복음으로 여는 미가-

미가 5:2-6, 마태복음 2:1-12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미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미가서는 남 유다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다. 오늘 본문 미가 5:2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데, 막상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미가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요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가서는 스토리 없이 영적 상황에 대한 메시지로 차 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미가에게 주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7장 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너무나 맞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 같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서론 : 미가서 개관

(1)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히브리어로 이 이름은 사실 '미가야'라고 발음한다. '미'는 '누가(who)', '가'는 '같은 이가(like)'라는 뜻이며, '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으랴' 하는 이름이 미가다. 그래서 미가 7:18의 내용을 보면 그 신앙고백이 나온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멸망해야 했다. 너무 잘못을 많이 했으므로 징계를 많이 하셨다. 그런데 미가서에 나타난 징계의 내용이 그대로 다 실행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최소한으로만 징계하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 회복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다 회복시키신다. 미가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았던 것이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는가!' 능력도 이런 능력이 없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서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다. 이런 분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변화시켜나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 아무리 도망가도 끝까지 붙잡으신다.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많이 느끼실 것이다. 편하게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지만 엄청 두들겨 맞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붙잡으시는 것이다. 램넛트는 가능하면 편하게 오시기 바란다. 고생도 가지있는 것이 있지만 가지없는 것도 있다. 필요 없이 너무 세계 맞으면 회복하는 데에 인생을 다 낭비하게 된다. 한 번 넘어지면 5년, 10년이 날아가 버린다. 믿음을 붙잡으면 그래서 끝까지 가라. 나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10년, 20년이 그냥 획 가 버린다. 그냥 손해보는 인생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믿음 안에 선 분들은 10년을 100년처럼, 30년을 300년처럼 남기게 된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란다.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미가는 느꼈던 것이다.

(2) 미가는 남 유다 모레셋 지방 출신으로, 남북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다.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열 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이야기다. 어떤 선지자는 남 유다만을 향해서, 어떤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만을 향해서 예언했으며, 어떤 선지자는 지도자만을 향해서, 어떤 선지자는 서민들만을 향해서 예언했는데, 미가는 남북 이스라엘과 지도자와 서민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넓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미가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다. 전체를 향한 사명이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서, 주로 왕과 지도자와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으며, 결국 그 왕에 의해 톱으로 쳐서 사망하는 순교를 하게 된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시골 서민 출신이면서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한 것이다.

(3) 미가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남북 왕조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계획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미가서의 내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언약적 결말을 맺는데, 미가서도 마찬가지이다. 1~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4~5장은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한다. 미가서 4장을 보라. 미가 4:3을 우리나라가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어떤 국제정치학자가 말했다. "미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 조건이 가장 좋은 곳이 한국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남북에 평화를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입장을 두고 3절을 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의 적이었던 일본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다.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00% 밀어주고 있다. 왜 우리가 일제 36년의 어려움을 당했는가? 임진왜란 이후 수백 년 동안 일본에서는 연구를 한 것이다. 그때 왜 자기들이 졌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다. 그 결과 한국을 36년 간 지배한 것이다. 지금이라 해서 다르겠는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 만리장성의 끝을 평양 북쪽으로 해 놓았다. 원래 자기들 땅이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붕괴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수백 명의 학자가 이론적인 것을 정립하고 있다. 러시아도 두만강 쪽에 길을 만들어놓았다. 문제 생기면 들어와서 한반도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실 것이다. 미국이 나쁘다는 말이 아닌데, 미국도 자기들 이익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 아닌가? 우리가 좋아서 돕는 게 아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주께서 판결하시면 어떤 강한 나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수주의가 아니다. 세계복음화로 나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인정받고 나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미사일, 원자폭탄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실 것이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실 때, 이 응답은 우리 주변 나라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스위스를 가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꼭 가보시기 바란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스위스를 공격하지 못했다. 작지만 강한 나라였다. 집집마다 수류탄, 소총을 다 갖춰 놓았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국민에게 보급해야 할 텐데, 화나면 터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스위스에서는 우발적인 총기 사고가 없다. 오랫동안 외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뚫돌 뚫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나? 21세기의 종교개혁이 한반도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이다. 주변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실 줄 믿는다.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4) 미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전(主前, Before Christ : BC) 8세기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 주전 931년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때이며, 북 왕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 미가는 그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강한 나라 앗수르를 들어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미가가 이 예언을 할 때, 지도자들을 향해서만 예언을 한 게 아니다. 백성들도 잘못했다고 미가는 지적한다. 대통령만 잘못했는가? 서민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가? 아니다. 모든 지도자, 정치인, 경제인과 함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탄핵당해야 한다. 하야해야 한다. 다 욕심 부리지 않는가. 사우나에 가서 수건 좀 가지고 오지 마라. (웃음) 사우나 이발사분이 탄탄을 하더라. 이렇게 새 타올을 갖다 놓으면 몇 달 안에 1/3이 없어진다. '이건 선물입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것은 남탕의 이야기다. (웃음) 여탕에는 아예 안 봐둔다고 하더라. 더 심하게 가져가니까, 일본이 올림픽을 하면서, 지갑이 땅에 떨어졌을 때 돈과 지갑을 다 돌려주는 나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지갑을 찾을 수 있어도 현찰은 없어진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시대에 미가가 메시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유다 민족과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 타락하여 우상을 섬겼으며, 사회적으로는 공의가 없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앙과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다. 유대 땅 베헤레헴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 어른보다 청소년이 더 순수한가? 얼마나 더 타락했는지 모른다. 징계를 당해야 한다. 회망이 없다. 게임으로, 노래방으로, 술로, 담배로, 이성교제로 오염되었다. 이놈 사귀었다가 저놈 사귀었다가, 오염되었다. 너무 오염되었기에 징계를 당해야 하는 것이 이 사회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 남은 자로 이 시대를 바꾸는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명자 되시기 바란다.

1.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북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당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

(1) 그들은 창세기 3, 6, 11장의 율무에 묶여 있었다. 수백 년 동안 불신앙과 죄와 사단이라는 율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 속에 있었다. 다윗 이후 북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북한을 보니까 북 왕조 이스라엘 같다. 사실상 왕조 아닌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명의 임금 중에 선한 이가 누가 있는가. 북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나라다. 악한 왕이 지배하다가 결국 사라지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이 북 왕국이었다. 북한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한다. 남 왕조에는 몇몇 왕이 섰다. 그러나 그것도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다. 남한은 어땠는가.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딸로서 자라면서 결혼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잘 해 보려고 했던 것 같다. 소소한 잘 한 점도 많은데, 잘못된 몇 가지 때문에 탄핵까지 받게 되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창, 3, 6, 11장의 율무에 묶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영적인 문제는 노력한다 해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2) 그 지도자와 백성들은 모두 시도행전 13, 16, 19장과 같은 무술, 점술, 우상의 벽

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계속 살았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무속, 점술, 우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것을 여로보암 왕 때부터 꾸준히 해 왔던 것이다. 요즘 새로운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없애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

(3) 그래서 불신자가 빠질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 함정에 들어가 버렸다.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 빠져서, 지옥처럼 살다가, 후대에 곱같이 이 재앙을 물려준다. 개인, 가정, 가문, 나라가 함께 이 재앙을 만나는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지도자도 백성도 후대도 다 그렇다. 스마트폰, 게임, 타락에 빠져서 총체적으로 불신자 상태 속에 허덕이고 있다. 이때, 여러분 중에서 남은 자가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시대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램넛트 일곱 명처럼,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처럼 언약의 배턴을 이어받고 전달하게 되기를 바란다.

2. 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

큰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대마다 허락하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1)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력방의 언약이다. 미가 5:2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분이 다스려야 한다.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직장, 사업,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학교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그래야만 참된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참된 부귀와 영화, 참된 성공을 얻어야 한다. ‘살롬’이 그것이다.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미가 5:4-5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가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 시대의 문제는 시대의 천명을 받은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인물이 로마서 16장의 인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천명을 받은 우리가 해결의 주역이 될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말씀하셨다.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다. 이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온 것이다.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소중한 절대적인 것을 하지 않고 놓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힘없는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택한 백성의 의무였는데 이것을 버린 것이다. 미가 2:2을 보라. “발들을 탐하여 빼앗고, 짐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다.”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자꾸 최순실 씨가 떠올랐다. 사업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나. 권력에 줄을 대지 않았나. 참 서글픈 것이, 장관 다음에 차관이 있지 않나. 차관이 어떻게 보였느냐 했더니, 최순실 씨의 수행비서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일개 아줌마의 수행비서처럼 되니까 국민들이 마음에 너무 절망감을 느낀 게 아니겠나. 헌법에,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썼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지 않나.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놓쳐서 그렇다. 탄핵을 한 국회의원, 국민들이 마음이 즐겁겠는가. 미가 7:2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고 했다. 교회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여러분, 부정부패하지 마라. 길에 떨어진 지갑을 돌려줘라. 사무실에서 수건 훔치려는 사람이 공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나머지 부분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에게 불리하면 no, 나에게 유리하면 공이라고 주장한다. 전체를 생각하지 못한다. 항상 기준이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경건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고 눈이 넓지도 못한 것이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미가 7:3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권세 있는 사람들이 결합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나? 미가 7:4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쪼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과연 대한민국의 가장 선한 자는 어떤가. 가장 정직한 자는 어떤가. 다 냄새가 나고, 돈을 좋아하고, 자리를 좋아하고, 빠지고, 자기 중심이 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4) 일심, 전심, 지속의 은혜다.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미가서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미가 7:18-20을 보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라. 다

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담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일심 전심 지속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로,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5)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마가다력방 교회와 초대교회 운동이 그 후손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다. 그들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를 모두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중심하면 이 축복을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6) 24, 25, 영원성의 방법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니엘 같은 램넛트가 일어나서, 그 속에서 24, 25의 응답을 받았다. 결국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라. 그렇게 해서 24, 25의 응답을 받으면 영원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각인, 뿌리, 체질의 방법이다. 불신앙과 우상과 가난한 문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의 깊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만 했다. 그 상태 그대로 놔 두면 치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중기가 있었는데, 고약을 붙여 보니까 중기가 익어 버리더라. 어머니가 그 고름을 다 짜냈는데, 너무 아팠다. 그러나 그것을 다 짜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 잘못된 사상,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는 것이다. 고름을 짜내시는 것이다. 잘못했을 때는 채찍도 드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강대국들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강한 채찍들이 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라는 채찍이 있다. 기름이라는 채찍도 있다. 수출 안 하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 땅도 좁다. 맞을 수 있는 채찍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변 모든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똑같다.

결론 : 반드시 보아야 할 아홉 가지 포인트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왕과 유대 지도자들은 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가? 상황이 너무 똑같다. 남북 이스라엘은 왜 잘못된 길로 갔는가? 오늘 우리도 왜 그런가? 중요한 아홉 가지 삶의 영적 포인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1) 위, 아래, 좌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위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천국을 모르고, 땅만 보다가 망했다. 아래의 소중함을 몰랐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좌우를 보지 못했다. 주변을 살펴지 못하고 백성을 살펴지 못하고 형제를 돌아보지 못했다. 이게 영적 문제다. 위, 아래, 좌우를 보지 못하는 한계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2) 넓이, 높이,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넓은 의견을 보지 못했지 않나. 사업도 정치도 국제정세도 전체를 봐야 한다.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깊이, 믿음에 대해 깊이가 있어야 하고, 적국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한다. 전문성도 깊이있게 가져야 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폐한다. 깊이 이해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높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모르고, 자기 높이의 한계를 모르니까 바벨탑을 쌓게 된다.

(3) 과거, 현재, 미래를 참고하지 않으니까 망망하고 징계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우리가 참고해야 한다. 러일전쟁, 청일전쟁의 모습과 지금이 똑같이 가고 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니, 그것을 빌미로 백성들이 일어난 동학의 난이 오히려 일본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역사를 보면 빌미를 제공한 것이 우리였다. 우리부터, 한국 교회부터 하나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과거를 봐야 한다. 현재 문제의 심각성, 영적 상태를 그들이 몰랐다. 그 진단이 정확히 안 된 것이다. 그러나 길이 안 보인다. 미래를 보지 못했다. 성령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한 것이 보이고, 100년 후 천 년 후가 보인다. 그래야 사업도 정치도 경제도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 후대 중에 그런 인물이 계속 나오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보며, 그들의 한계와 문제점,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심한 정계가 임하지 않았는데, 이때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통회복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완전한 민주국가로 발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성숙하게 하시며, 평화적으로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 방향으로 도약하도록, 새로운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미가처럼 이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